

한화케미칼, 임직원 금연 강력 추진

한화케미칼이 새해를 맞아 사내 금연 정책을 무기한으로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.

한화케미칼에 따르면, 담배를 피우는 임직원 80여명 모두가 금연 서약서에 서명했고 금연에 성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월 1회 정기·불시 니코틴 농도 검사를 하기로 했다.

흡연 사실이 적발되거나 니코틴 검사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1차 경고 뒤 2차 경고부터 회사가 지정하는 금연학교에 가야 한다.

금연학교는 특히 개인의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, 4회 이상 금연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.

<화학저널 2011/01/11>